록키 본 뒤 설악

(요8:48~59)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2.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록키 본 뒤 설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록키 산맥을 본 뒤에 설악을 보면’이라는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조영남 씨를 다들 아시죠?
조영남 씨가 실지로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하신 것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2010년에 <이 상은 이상 이상이었다>라는 언어유희로 된 제목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상은 이상 이상이었다'
앞의 '이 상'은 28세에 요절한 천재시인 이 상을 말합니다.
다음의 두 번째 '이상'은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 할 때, 그 이상(異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상이었다'라는 것은 수량의 정도가 많을 때 사용하는 이상(以上)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이상 이상이었다'
뭐냐 하면, 시인 이 상의 시 100여 편을 모아서 해설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악과 미술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이 문학작품을 현대미술사조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서 해설을 해나갑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저술한 다음에 이분이 한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조영남 씨가 한 말이 '라인강과 세느강이 있고 한강이 있는데, 라인강과 세느강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만 나는 한강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돌아와서 늘 한강을 보며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일의 라인강과 파리의 세느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한강을 보면서 한강둔치에 와서 점심 먹고, 운동하고, 놀기는 하지만 한강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라인강과 세느강을 보았더라면 한강을 대할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강만을 한강으로 보고 있는 사람 속의 한강과, 라인강과 세느강을 본 뒤에 한강을 본 사람들의 한강은, 그 대하는 느낌과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세느강과 라인강을 본 다음에 한강을 보는 사람의 태도를 한강만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한강둔치에 와서 조영남 씨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와~! 와~!' 그랬을 텐데, 한강만을 보면서 둔치에 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적용의 방향이 반대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카나다의 로키산맥을 본 사람은 설악산을 보았을 때, 설악산만을 봐왔던 사람과 완전히 그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의 무한계곡을 보고, 로키산맥의 웅장함을 대한 뒤에 곧바로 설악산을 와서 딱 볼 때, '어허,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게 생겼구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설악산만을 본 사람들은, 내설악 마당에서 설악산 쪽을 올려다보면 웅장하기 그지없어서 그 웅장함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설악산 마당 앞에 세워놓았는데, 이 사람이 '아, 손바닥 안에 떠억 들어오니 아담하게 참 좋구만!'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로키를 본 뒤에 설악을 본 사람의 설악을 대하는 태도를, 설악산만을 봐온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듣다가 '당신이 사마리아사람이거나 아니면 귀신들렸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방인이라는 얘깁니다.
늘 봐왔던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렸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와 예수님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와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진리에 의해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서로서로 볼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느낌과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거나 미쳤거나, 사마리아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계 유일의 선민을 향해서 마귀가 아버지라는 말씀이 웬 말입니까?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느낌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이상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본 게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무얼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유대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귀신들렸거나 사마리아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일 만큼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든 이유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상하게 보이도록 했을까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내 마음 안에서 영광, 영화로운 빛이 하나님에게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는 어느 특정 부분이나 특정 인물에만 특별히 밝게 조명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겁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우선적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를 미쳤다고 하고 사마리아사람이라고 하고 귀신들렸다고 얘기한다' 무슨 뜻입니까?
로키산맥과 그랜드캐니언을 보고 설악산을 보듯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너희를 보니까 지금 너희의 상태가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아버지를 먼저 보게 될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립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경제문제가 한강이라면, 라인강과 세느강을 보고 한강을 볼 때, 그랜드캐니언과 로키를 보고 설악산을 볼 때, 완전히 설악산만을 보고 있고 한강만을 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고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하나님을 보고나서 한강이고 설악산인 돈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게 보여서, 그 돈 없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정신이 없거나 미쳤거나 귀신들렸거나 하여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나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대하며 사람을 마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못 보고 똑같은 상황을 대하고 사람을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상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정상으로 보이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눈에, 내가 정상으로 보인다면 아주 심각한 이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상해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상해보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신 십자가사건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때이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될 때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내 육체보다도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몸이 죽는다는 것, 죽음의 존재감이 제로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몸은 죽을 거예요,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자리에 서있게 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나서 이 몸이 죽는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로키산맥을 보고 설악산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달라져서 죽음의 존재감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제로라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죽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죽음의 존재감이 제로가 돼버리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감이 제로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지요.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 밥이 되어도 찬양을 하며 죽습니다, 화형을 시켜도 찬양을 하며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더 미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니까, 로키를 보고 설악산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강만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세느강과 라인강을 보면서 한강을 느끼는 느낌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한강이에요, 다른 한강.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육체의 죽음을 보면 다른 죽음이에요, 의미 제로의 죽음인 겁니다, 존재감 제로인 죽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죽음을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존재감이 제로이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시간 속에서 태어났다가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시간 바깥에 계셨다는 얘기에요.
시간 바깥에 계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보셨고, 아브라함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서 죽음의 존재감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죽음의 존재감이 제로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어야 마땅한데 늘 히죽거리고 다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바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시간 바깥의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시간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이 머물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 바깥에 내 마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굉장한 일도 내 눈에는 아무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의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듣고 있다가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 하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을 갖고 바라볼 때는 자기 변론 시간에 왜 예수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미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몸이 재판을 받아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예수님을 먼저 보고 있고, 예수님을 먼저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이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고 보여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미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쳤거나 안 미쳤거나 그건 상관이 없고…
이것도 미친 얘깁니다, 왜 상관이 없어요?
재판권을 갖고 있는 총독과 왕이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올바르게 보여도 지금 풀려날까 말까 한 판인데, 거기다 뭘 또 보태느냐 하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총독에게…
제가 지금 박 근혜 씨에게 가서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당장 이 미친 사람 바깥으로 잘 모셔라!

그런데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아버지가 내 마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면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나처럼 되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말과 느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산다는 것, 뭔가 멋있지 않아요?
멋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지금 갖는 거예요.
지금 시간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의미가 내 마음에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뵙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주대할 때, 예수님보고 사마리아사람이다, 귀신들렸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한강이고 설악산입니다.
라인과 세느를 보고 한강을 보듯, 그랜드캐니언과 로키를 보고 설악을 보듯이,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세상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일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